

# 지역창업 생태 구축 앞장

## 원광대, 5년 연속 창업선도대학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2018년 창업선도대학 전국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돼 올해 한해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원광대는 지난 2014년 처음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이후 2015년 일반형에서 거점형으로 전환돼 명실상부한 전북지역 창업 선도 대학으로서 총 80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2017년 매출 489억, 수출 23억, 고용 222명의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현재까지 총 13회의 창업 강좌를 통해 약 300여 명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전문 지식을 전달했으며, 119개의 1학과 1기업 창업과 창업동아리를 통해 활발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백현기 창업지원단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업 중심대학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4차 산업 신사업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육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창업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한편, 2018년 창업 지원 사업은 25개의 아이템 사업화(총액 1억원)를 통해 사람·기술 간 융합으로 성공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보유한 2인 이상 기술기반 창업 팀을 연3회(6월, 9월, 12월)집중 발굴 육성하고, 교수(석·박사)연구실 팀창업과 학생창업자를 일직 비율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원광대 창업지원단은 군·청 소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창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타 대학의 창업지원 모델컨설팅 지원 등으로 지역 창업 생태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익산=정양원기자

# “군산 유령도시 · 폐허로 전락 막아야”

## 박재만 예비후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미국원정투쟁' 진행상황 설명



박재만 군산시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19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GM 본사 항의 방문 투쟁 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원정투쟁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14일 군산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지만 오늘 전 도의원으로 마지막 의정활동인 GM 본사 항의 방문 투쟁을 보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면서 "군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치인으로서 미국 GM측에 군산시민의 울분과 배신감을 전달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판단했다. 군산이 유령도시로 변하고 폐허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지옥타도 가아 했다"고 미국원정투쟁 소회를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하여 벌어지고 사태에 대하여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군산을 살려달라는 절규와 함께 군산이 지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청와대를 방문하여 미국원정투쟁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산업은행주도의 투명한 실사 진행, '군산공장 폐쇄철회', '비정규직 해고철회', 'GM의 폐쇄철회 거부시 정부 주도의 군산공장 매각 진행',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완화' 등을 강력하게 건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정부와 GM간의 협상이 군산의 회생만을 강요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미국 GM 본사 앞과 백악관 앞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 '비정규직 해고철회'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한 것은 나날이 확산되는 군산의 절망감과 상실감을 극복하고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군산공장 비정규직 200여명이 일방적인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가질 수밖에 없는 약자의 실움과 비애가 군산시민의 가슴에 응어리진 고통과 한숨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였다"면서 "군산공장의 폐쇄가 기정사실화되는 사실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군산 시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지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미국원정투쟁의 결심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재만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장현철위원장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12일 GM 본사 앞, 13일 백악관 앞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 등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인 바 있다. 또한 한국GM의 적자책임이 GM에게 있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GM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국GM 정상화에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군산시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도록 군산시민이 나서서 강제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정양원기자

# 익산시 주얼팰리스 임대매장 입주업체 내달 2일까지 모집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귀금속보석 판매센터 1개 공실에 대한 입주업체를 19일부터 4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입점자격 및 조건)에 따라 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익산시청 한류패션과(859-4383)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는 익산시 홈페이지(www.iksn.go.kr) 공고/고시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 보석도시로, 불가 보석축제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주얼팰리스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현재 주얼팰리스에는 전시 판매시설 총 64개 업체와 공방시설에 귀금속 수리센터 2개 업체가 입점해 운영 중이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김판근기자

# 군산시, 안전한 도시 조성 무연고 노후 · 위험간판 정비

군산시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흉물스럽고 위험하게 방치돼 있는 무연고 노후·위험간판에 대해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철거에 나선다.

이번 간판 철거는 점포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간판을 철거해야 하나 그대로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위험간판을 철거해 풍수해에 대비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철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시는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연고 노후·위험간판에 대한 철거 신청을 받는다.

철거 신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란 및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건축경관과 광고물체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경관과(☎454-3612)로 문의하면 된다.

곽오훈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간판 철거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강풍 등 재난에 대비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무연고 노후·위험간판 철거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노후·위험간판이 산재해 있는 원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펼쳐 109개소의 위험간판을 철거했으며, 올해 간판 철거사업(1차)은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5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근기자

# 군산시, 내달 27일까지 시민 · 공무원 제안 공모전

군산시는 시민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의 발전과 행정능률화를 견인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4월 27일까지 '2018 시민·공무원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군산시 3대 핵심과제 관련 경제활성화, 관광광역화, 어린이 행복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풍·화·격 군산 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사업 발굴 ▲예산절감, 시민생활 편의 증대 등 행정능률화 제고를 위한 자유제안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분야이다.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은 행정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민제안 응모의 경우는 제안사이트(www.epcpb.gakr), 우편, 이메일,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군산=김판근기자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군산시 보건소, 결핵예방 · 중요성 홍보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제8회 결핵예방주간(3월19~25일)을 맞아 결핵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결핵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결핵예방 집중 홍보에 나선다.

보건소는 기침예절 수칙과 함께 결핵조기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경로당·잡간사실 보건교육 시 결핵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결핵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또는 재채기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가리기, 기침 후 손 씻기 등 기침예절을 지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군산=김판근기자

화를 위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2주 이상의 지속되는 기침증상이 있을시 반드시 보건소 및 관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자에 대한 치료 및 추후관리와 함께 결핵인식개선, 접촉자 관리 등 결핵에 대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 보건소는 결핵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및 객담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집단시설 입소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하는 등 결핵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 익산시, 모현동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 추진 간담회

익산시 모현동은 19일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에서 모현동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현동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모현동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는 익산시 제1의 인구를 자랑하는 읍면동으로서 모현동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 나눔 및 사랑을 실천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 1센터 1특화 프로그램으로 계획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모현동 모든 주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통합협의회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했으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지역자문가 4명도 함께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정기운 모현동장은 기관·단체에 "모현동 지역의 옛 마을명칭 유래와 주민이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사진 등의 자료 수집과 모현동 역사 스토리텔링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야기 책 편찬 이후 각급 학교에서는 모현동의 역사에 대해 학생들과 공유하고 교육하는 교과목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길우 주민자치위원장은 "올해 9월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함께 이야기 책 편찬 기념식을 추진할 계획이고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사업계획으로 선정되어 관련 예산도 확보되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어린이 행복동행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